

노래와 시의 상호텍스트성을 활용한 한국어교육

– 김소월의 시와 마야의 “진달래꽃”을 중심으로 –

노금숙*

〈차례〉

- I. 문제제기
- II. 노래와 시의 상호텍스트성과 문학교육
- III. 노래와 시를 활용한 시 교육의 실제
- IV. 맷음말

I. 문제제기

중국의 대학교 정규 과정의 한국어교육에서는 초기부터 문학교육을 중요시하였다. 그것은 기타 외국어교육에서 해당 언어와 문학에 대한 교육을 중심으로 진행해왔고, 중국어 교육에서 문학의 효용론이 전통적으로 중시되어 왔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기타 외국어교육이나 모국어 교육에서의 문학교육과 비교해보면 한국어교육에서의 문학교육은 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 원인은 외국어교육에서의 문학교육은 모국어와는 달리, 목표어의 사회, 문화에 대한 이해의 부족, 언어 지식의 제한을 받기 때문이다. 일단 언어능력의 제한을 받으면 문학을 통한 문학교육, 문학을 통한 문학교육은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고 문학교육은 사실 어휘와 문법학습을 위한 언어교육에 그치고 말게 된다. 그리

* 중국 호남사범대학교

하여 중국에서의 한국문학 교육은 한국어교육과 맥을 같이 하고 있기는 하지만, 사실상 문학을 통한 언어교육의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이다.

본고에서는 문학교육의 세 가지 목표, 즉 문학을 통한 언어교육, 문학을 통한 문화교육, 문학을 통한 문학교육 중에서 문학자체의 교육적 가치를 더 중요시하고 있다. 만약 문학을 단순히 언어교육으로 활용하자면 꼭 한국문학이 아니어도 된다. 중국에는 이미 한국어로 번역이 되어 있는 중국문학 작품이 많다. 인지적 측면에서 보면, 한국어로 번역된 중국문학 작품은 이미 형성된 학습자들의 내용스키마를 자연스럽게 활성화시킬 수 있어 텍스트의 내용에 접근이 용이하다. 한국어로 번역된 대부분의 중국문학 작품은 중국인 학습자들이 이미 그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혹은 학습자가 읽지 않은 작품이라도 모국 작품이라 문화적인 측면에서 이해하는데는 아주 용이하다. 또한 번역된 작품은 학습자들이 중국어와 한국어의 문장의 구성과 어휘 및 문법을 대조하면서 학습할 수 있기에 언어학습에 더 효과적이라고 본다.

또한 문화교육에 목적이 있다면, 굳이 한국문학 작품을 활용해야 하는 것도 아니라고 본다. 한국 드라마, 한국 영화, 한국문화를 다룬 글 등이 방송과 인터넷을 통하여 대량적으로 전파되고 있는 실정인바 이러한 것을 활용하면 문화교육이 더 효과적이다. 김중섭은 중국인의 한국 체험기, 중국과 한국의 문화적 공통부분을 다룬 글들은 중국인의 눈으로 바라본 한국 문화이므로 문화적 난이도 및 충격이 어느 정도 정제되어 있는 글이기에 한국 문화를 접하고 잘 이해할 수 있는 계기도 된다¹⁾고 하였다.

따라서 중국의 한국어교육에서 문학교육의 목적은 문학교육자체가 중심이 되어야 하며, 구체적으로 한국문학이 내포하는 한국어지식, 한국문학의 구조체계, 한국문학에 표현된 한국인의 정서와 가치관, 다시 말하면, 작품자체의 특수성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본다.

그러나 기존의 한국어교육에서 문학교육에 관한 논의의 대부분은 문학을 활용한 언어교육이나 문화교육에 많이 치우치고 있었으며 문학의 독

1) 김중섭(2002),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읽기 교육 방법 연구, 한국어교육 제13권 1호, 국제한국어교육학회, 57쪽.

자성을 인정하고 문학을 문학으로 가르치고자 한 논의는 극히 드물다. 특히 교수-학습 방법에서 문학교육은 주로 문장 단위의 해석 및 비생산적인 어휘학습과 문법교육으로 일관되어 있으며 주로 텍스트에 대한 교사의 단선적인 주입식 방식으로 이루어져 학습자들은 수동적인 텍스트 이해에 그친다. 교사의 일방적인 텍스트 해석과 주입식 전달로 이루어지고 있는 교수-학습 방법은 교육적 효과 차원에서 반성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러한 견해를 전제로, 본고에서는 노래와 시의 상호텍스트성에 의한 한국 현대시 교수-학습 방안을 모색해보려고 한다. 이러한 접근방식은 지금까지 진행해 온 한국문학교육의 연구와는 좀 달리, 그 목적이 문학을 위한 문학교육에 치우쳐 있으며, 또 학습자의 정서적 및 인지적 측면의 발달을 중요시하고, 나아가 한국문학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는데 의미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II. 노래와 시의 상호텍스트성과 문학교육

1. 상호텍스트성과 문학교육

상호텍스트성²⁾이란 간단히 말하면 텍스트와 텍스트 사이의 관련성을 말하는 것으로, 처음 논의될 때는 텍스트의 영향 관계에 대한 논의에 제한되었지만 여러 논의를 거치면서 개념이 확대되었다.

2) 상호텍스트성은 1960년대에 이르러서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하였지만 사실상 그 역사는 상당히 길다. 플라톤의 모방론, 시적 영감 이론, 소크라테스식 대화,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 등은 상호 텍스트적 모방과 번역의 문제와 밀접한 관련성을 띠며, 르네상스 시대에 이르러 세이스피어, 베이컨 등의 작가들에 의해 본격적으로 발전되기 시작한다. 이러한 상호텍스트성은 모더니즘 이론가들에 의해 진지하게 논의되기 시작하는데, T.S 엘리어트의 『황무지』(1992), 마르셀 푸르스트의 연작 소설『잃어버린 시간』(1913~1927)은 상호텍스트성이 형상화된 대표적인 작품에 해당한다. 김옥동(1992), 포스트 모더니즘 이론, 민음사, 192~194쪽.

상호텍스트성은 불가리아 태생의 기호학자 크리스테바가 처음 사용한 용어이다. 크리스테바는 한 발화가 화자(작가)나 청자(독자) 또는 다른 발화(문학텍스트)와 갖는 상호텍스트성을 수평적 관계(한 발화가 발화 내적으로 화자와 청자와 맺는 관계)와 수직적 관계(발화가 그 이전 또는 동시대의 다른 발화와 맺는 관계)로 구분하면서, 모든 텍스트는 마치 모자이크와 같아서 여러 인용문들로 구성되어 있고, 모든 텍스트는 다른 텍스트를 흡수하고 변형한 것이라 하였다.³⁾

컬러는 상호텍스트성은 어느 한 작품이 그 이전의 특정한 텍스트들과 맺고 있는 관련성을 가리키는 명칭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그 작품이 한 문화의 담론 공간에 참여하는 것을 가리키는 명칭이 되며 그것은 한 텍스트가 한 문화의 다양한 언어나 의미 행위와 맺고 있는 관련성을 가리킨다며 상호텍스트의 개념을 텍스트가 내포하고 있는 문화나 사회, 역사적인 맥락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확장한다. 이처럼 넓은 의미의 상호텍스트성은 한 텍스트 내에 나타나는 내적 범주의 상호텍스트성, 비문학적인 인접 장르들 간의 상호텍스트성, 같은 장르의 텍스트간의 상호텍스트성, 텍스트가 내포하고 있는 문화나 사회, 역사적인 맥락과의 상호텍스트성까지 포함하게 된다. 여기서 상호텍스트성은 단순히 문학과 문학뿐만 아니라 문학과 기타 텍스트 즉 음악, 미술, 건축, 조형 등과의 상호 관련성을 가리킴을 알 수 있다.

상호텍스트성은 텍스트의 생산에서뿐만 아니라 텍스트의 수용에서도 반영된다. 독자의 의미 구성도 한 텍스트 내에서 도출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텍스트와의 관계 속에서 상호텍스트성을 바탕으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야우스는 텍스트의 이해과정에서 독자는 이미 읽었던 다른 작품에서 얻은 지식이나, 이전의 어떤 경험적인 요소가 텍스트 이해에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특히 그는 수용자가 가지고 있는 바람, 선입견, 이해 등 작품에 관계된 모든 전제를 ‘기대지평’이라 명명하고, 기대지평에 따라 작품에 대한 이해의 범주가 결정된다고 보았다. 그리하여 문학작품이 수용

3) 여홍상 편(1997), *바흐친과 문학이론, 문학과지성사*, 236~237쪽.

자에게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그 작품을 수용하기 위한 기대지평이 형성되어야 한다고 했다. 여기서 기대지평은 곧 상호텍스트성을 바탕으로 성립된 개념임을 알 수 있다.

예술의 목적과 본질이 인간의 정감적 및 인지적 감수를 확장하는데 있다고 보면, 문학작품과 기타 형식의 텍스트와의 결합은 교육의 현장에서 의미가 있는 일일 것이다. 그러나 문학교육에서 문학작품과 음악, 미술 등 기타 예술작품과의 상호텍스트성을 담론한 연구는 많지 않았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학습자의 텍스트 수용적인 측면에서 노래와 시 즉 음악과 문학 텍스트의 상호텍스트성에 관한 논의를 바탕으로 한국어교육에서의 현대시 교육에 대해 논의를 하고자 한다.

2. 노래와 시의 상호텍스트성

암브로스(Ambros)는 음악의 본질과 문학의 본질이 유사하다고 주장한다. 그는 굳이 언어와 음악이 융합된 성악을 염두에 두지 않고도 어차피 음을 표현매체로 갖고 있는 음악도 본질적으로 음 자체만으로는 음악이 나타내고자 하는 의미를 다 표현해내지 못한다고 보고 있다. 즉 음악은 예술의 장르에서 두 가지의 극을 나타내고 있다. 음악은 한편에서 보면 건축적, 형식적인 예술이지만 다른 편에서 보면 시적인 관념의 예술이며, 또 다시 어느 정도까지는 일정한 제재를 나타내는 예술이다.⁴⁾ 그리고 음악은 두 개의 요소로 이루어져 있는데 형식적인 요소와 관념적인 요소⁵⁾라고 한다. 음악의 형식적 요소는 음악적인 논리에 의해서 조립되고 그 자체로서 충분한 아름다움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 관념적인 요소는 작곡가의 시적인 사상이 작품 그 자체를 통하여 이해되고 음악의 내용이 되는 것이라는 데에 있는 것이다. 그는 음악이 의미 있게 듣는 이에게 전달되는 것은 문학이 전달하고자 하는 어떤 내용을 갖고 있는 것과 마찬가

4) A. W.Ambros, 国民음악연구회 역(1976), 音樂과 詩의 限界, 국민음악연구회, 25쪽.

5) 위의 책, 166쪽.

지로 관념적인 내용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암브로스는 음악이 단지 음악적인 논리에 의해서 구성된 음의 조합으로서는 의미가 없고 정신적인 관념으로서의 내용을 가졌을 때 의미가 있는 것이며, 정신적인 관념이라는 것에 음악이 본질적으로 문학과 깊은 관련성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암브로스는 문학적인 측면에서 음악을 파악하여 ‘음속에 융화되어 버린 언어의 예술이라고 정의한다.⁶⁾

시에는 서정시, 서사시, 극시가 있다. 서정시는 기본적으로 시인의 주관 표현이라는 성격을 지니면서도 그 표현 양상은 다양하다. 람핑은 서정시를 ‘시행을 통한 시적 발화’라고 규정하고, 소통방식에 따라 노래하기에 보다 적합한 서정적인 시, 낭독하기에 보다 적합한 서정적인 시, 읽기애 보다 적합한 서정적인 시로 나누었다. 서정시는 작자의 주관적인 정서나 감동을 높이 노래하는 식으로 표현하는 시로서 그리스에서는 칠현금의 가락에 따라 노래하기 위한 시로서 많이 만들어졌다. 서정시는 어원부터 노래 혹은 음악과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었으며, 노래에 가장 가까운 문학 형식이 된 것이다. 그리하여 서정시하면 으레 가장 음악적인 장르, 아니면 노래와 가장 가까운 장르로 인식되는 것이다. 아스무트는 시의 두드러지는 특징을 짧음, 노래로 부를 수 있는 성향, 주관성 그리고 언어의 특이성과 함축성으로 요약한다.⁷⁾ 여기서 노래로 부를 수 있는 성향은 바로 시와 음악의 밀접한 관련성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다.

사실 시에 운율을 부여하여 읊는 형식이 오래 동안 존재하여 왔지만 특히 현대음악의 발전을 보면 시의 내용을 음악의 가사로 활용하고 곡조를 부여하여 만든 노래들이 속출하고 있다. 이는 서정시와 노래, 서정시와 음악은 원래부터 뗄 수 없는 관계였으며, 시와 음악은 같은 원천에서 태동된 예술인 것이었음을 진일보 설명해준다.⁸⁾

6) 위 책, 64쪽.

7) 노태현(2004), 독일시 운율론과 시사, 한국문화사, 3쪽.

8) 정경량(2002), 시와 노래를 이용한 외국 어문학 수업, 인문과학 11, 162쪽.

3. 노래와 시의 상호텍스트성에 의한 시 교육의 의의

우리가 무엇을 안다는 것은 그것을 다른 것과의 비교와 융합을 통해 더 명확하게 구조화하고, 또 그 구조를 더 심화시키고 발전시키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한국어교육에서 한국문학 교육은 상호텍스트성이 있는 텍스트를 활용하여 학습자의 흥미를 유발하고 적극적으로 한국 문학의 실체를 파악하게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한국문학 교육 방법이라 할 수 있다. 하나의 텍스트는 그대로 독립성을 지니지만, 한국어 학습자가 목표어로 된 작품에 대한 이해에 도움을 주고자 다른 텍스트와의 관계 속에서 이해한다면 더 풍부해질 수 있는 것이다.

카르니(Cairnay, 1992)도 언어교육적인 면에서 상호텍스트성의 조장이 필요하다고 제안한다. 그는 교실에서 허용되는 상호작용의 질과 양은 학생들의 상호텍스트적인 경험을 구성하는데 유의미한 영향력을 갖는다고 하였다.

하트만(Hartman, 1994)은 현재까지의 읽기 수업은 단일 텍스트에 대한 이해나 개인적인 글의 이해에 중점을 두고 있어 텍스트에 대한 이해의 초점이 텍스트 내에 머물면서 텍스트의 내용 표상에 그치면서 읽기는 한 텍스트 내에서의 논의로만 끝나고 관련된 텍스트에 대한 이해로 확장되지 못했다고 지적한다. 그 대안으로 텍스트 사이의 주제적, 화제적, 역사적, 원형적(archetypal), 장르적인 연결을 할 수 있는 단원이나 과정을 조직하여 통합적인 연결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노래는 언어를 지각하는 데 필요한 음성학 및 음운론적 요소뿐만 아니라 의미 파악에 필요한 어휘나 관용적 표현 및 문법 등을 익힐 수 있게 한다. 특히 노래는 어구나 문장이 반복되는 형식을 자주 취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언어의 내용을 이해하도록 돋는다. 학습자에게 있어서 동일한 구조의 반복은 매우 지루한 것일 수 있지만, 그것이 노래에 담겨 있으면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Gfeller(1983)는 다양한 유형의 언어정보는 음악적 요소와 함께 제시될 때 기억이 증진된다고 하였다. 특히 리듬은 언어의

미의 유무에 관계없이 정보 기억의 유지에 기여한다. 그러나 리듬의 영향은 언어 정보가 의미를 수반할 때 극대화된다(Glazner, 1976). 이처럼 음악적 요소들은 언어 학습을 방해하거나 경쟁하는 관계에 있지 않고 상호 보완적 관계를 지니므로(Palermo, 1978 ; Borchgrevink, 1982) 유의미한 가사와 음악적 요소가 결합된 노래는 외국어 학습에 유용하게 적용될 수 있다.⁹⁾

Peters와 Hirst(1971)는 학습자가 느끼는 흥미와 학습 동기에 관하여, 내재적인 학습 동기가 유지되어 교육적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학습자의 이해와 흥미를 존중하는 교육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학습자의 정서적인 측면에서 생각해볼 때 시 교육에서 노래와 연관성을 짓는 것은 학습자의 흥미를 유발하고 최적의 학습 분위기를 유지하는 아주 훌륭한 수단이라고 볼 수 있다. 신정숙¹⁰⁾은 언어와 음악을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한 구성요소라고 보고 언어가 의사소통의 도구이기 때문에 필수적인 것이라면 음악은 인간의 정서를 완화시키고 감정을 표현하는 도구이며 그 음악을 소유한 사람들의 문화와 가치를 다음 세대에 전달하는 기능을 가진다고 하였다.

크라센(Krashen)도 이와 유사한 주장을 하였는바, 그의 정의적 여과 장치 가설에 의하면 성공적인 영어 습득을 위한 정의적 요인으로서의 정서적 상태나 태도를 습득에 필요한 입력을 자유로이 통과시키거나 차단시키는 역할을 하는 여과기라고 보고 있다. 이 가설에서는 제2언어 습득에 관련된 세 종류의 정의적 혹은 태도 변인들을 동기, 자신감, 불안감으로 보고 있다. 크라센은 정의적 필터(Affective-Filter)가 높으면 언어습득 활동이 어려워지며, 낮을수록 언어 습득이 촉진된다고 말한다. 따라서 정의적 필터를 낮춰 학습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입력이 흥미로워야 하고 교실 분위기를 편안히 만들어 학습자들이 마음 편하게 수업에 임할 수 있도록 노래로서 수업의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다.

9) 독고현(2000), 고등학교 영어 학습을 위한 팝송의 활용 방안과 효과에 관한 연구, 연세 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5~9쪽에서 재인용.

10) 신정숙(2000), 노래 그림책이 유아의 읽기 흥미 어휘력, 읽기 능력에 미치는 영향, 성신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III. 노래와 시를 활용한 시 교육의 실제

1. 김소월의 시와 마야의 『진달래꽃』의 상호텍스트성

김소월은 한국 현대시사에서 국민시인이라고 불릴 만큼 한국 현대문학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오세영(2000)은 김소월 시에 대하여 “우리 시사에서 가장 보편적이면서도 가장 개성 있는 시, 가장 한국적이면서도 가장 세계성을 띤 시, 가장 쉬우면서도 가장 깊이를 지닌 시, 그리하여 남이나 북이나 공히 위대한 서정시로 공인할 수 있는 시를 고르라면 누구나 김소월의 시를 드는 데 주저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김소월을 건너뛰어 한국의 시 나아가 한국의 문학을 이야기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고 평가하였다. 김소월의 『진달래꽃』은 한국의 고등학교 국어교과서에 수록되어 있는바 한국인이면 다 아는 시이며 또 노래로도 널리 애송되는 작품이다.

김소월의 『못잊어』, 『옛이야기』, 『엄마야 누나야』, 『진달래꽃』 등 57편의 시가 140편의 가곡이나 유행가의 가사가 되었다. 이것은 김소월의 시에는 사람의 심금을 울리는 보다 독특한 어떤 매력이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시 『진달래꽃』은 1944년 김순남에 의해 처음 작곡되었고, 1994년까지 총 12명의 작곡가에 의해 가곡화 되었다.¹¹⁾

본 연구에서는 중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기에 가곡보다는 요즘 학생들이 선호하는 록 음악으로 마야(우지민·루시아 작사, 우지민 작곡)가 부른 『진달래꽃』을 김소월의 시와 연관 지어 살펴보고자 한다. 마야가 부른 노래는 이전 곡에 비해 박자가 빠르고 고조된 감정을 자유롭게 표출하였다. 이전의 곡은 감정을 절제한 까닭에 고요하고 비장하지만 마야의 노래는 감정의 과정으로 인해 요란하고 격렬하다. 이처럼 록 음악에서 큰 소리는

11) 김희진(2002), 김소월의 시 『진달래꽃』에 의한 한국가곡의 비교연구 : 작곡가별 중심으로,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쪽.

기성세대가 아닌 젊은이들의 청각 감수성과도 어울린다. 록은 소외된 젊음의 주체적 사운드이며 모순된 사회에 저항하는 음악이다.¹²⁾ 이러한 록 음악의 특수성과 가사의 결합으로 마야의 노래에서는 내 곁을 떠난 임을 향한 처절한 몸부림이 절제 없이 아름다움으로 나타났다.

김소월의 『진달래꽃』은 어려운 시구가 없지만 중국인 학습자들은 시적 정서에 대한 이해를 어려워하며 단순히 남녀 간의 연시(戀詩)로 읽는다. 물론 학습자 중심에서 볼 때, 이 시를 이렇게 읽는 것이 잘못 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 시의 문학사적 위치와 현재까지 애송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보면 이 시에서 한국인의 정서—한의 정서에 대한 이해가 이루어지도 록 교육해야 한다고 본다. 두 텍스트 모두 남과의 이별로 인한 애상(哀傷)을 절절하게 드러낸다는 점에서 정서적 동질성을 갖는다.

김소월의 시와 마야의 노래를 살펴보면서 구체적으로 두 작품의 상호 연관성을 찾아보도록 하자.

김소월의 시	마야의 노래
나 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밀없이 고이 보내드리우다.	나 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밀없이 고이 보내 드리오리다
영변에 약산 진달래꽃 아름 따다 가실 길에 뿌리우리다.	나 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오리다
가시는 걸음걸음 놓인 그 꽃을 사뿐히 즈려 밟고 가시옵소서.	날 떠나 행복한지 이젠 그대 아닌지 그댈 바라보며 살아온 내가 그녀 뒤에 가렸는지
나 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우리다.	사랑 그 아픔이 너무 커 숨을 쉴 수가 없어 그대 행복하길 빌어줄께요 내 영혼으로 빌어줄께요
	나 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밀없이 고이 보내 드리오리다 영변에 약산 진달래꽃 아름따다 가실 길에 뿌리오리다

12) <http://blog.naver.com/poo3217/80021990486>.

가시는 걸음 놓인 그 꽃을
사뿐히 즈려밟고 가시媪소서
나 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오리다

내가 떠나 바람 되어 그대를 맴돌아도
그땐 그널 사랑하겠지
나 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 보내 드리오리다
영변에 약간 진달래꽃
아름따다 가실 길에 뿌리오리다
가시는 걸음 놓인 그 꽃을
사뿐히 즈려밟고 가시媪소서
나 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오리다
나 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오리다

노래의 1~4행은 시의 1연과 4연을 인용하였는데 시의 행을 고쳐서 1, 2행이 3, 4행과 대구법의 형식으로 되어 있다. “나 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은 ‘내’가 역겨워서 임이 떠난다면 조용히 눈물도 보이지 않으면서 보내겠다는 것을 반복의 형식으로 강조하고 있다. 나를 버리고 떠나는 임, 그것도 다른 여자 때문에 ‘나’와의 사랑을 끝내는 임을 나는 미워하거나 원망하지도 않는다. 도리어 ‘나’는 아픔이 너무 커서 숨마저 쉴 수가 없지만 임이 행복하기를 나의 영혼으로까지 빌어주겠다고 다짐한다. 나를 배신한 사람에게 행복하게 살라고 빌어주는 것은 비현실적인 행위이지만 그 내면에는 임과의 재회의 가능성과 바라는 나의 마음이 반여적으로 표현되어 있다.

이러한 정서가 시에서는 내가 역겨워 가시는 임에게 진달래꽃을 뿌려 그것을 즈려밟고 가 달라고 표현하였다. 내가 싫어 떠나가는 임에게 꽃을 뿌린다는 것도 비현실적인 행위이지만, 그것이 아름다운 이유는 임의 배신에도 불구하고 나의 사랑이 변함없다는 데 있다. 이처럼 노래에서는 나를 배신한 임이 행복하기를 바라고 시에서는 순종의 미덕을 지닌 여인이

임이 떠나는 길에 진달래꽃을 뿌리겠다는 것으로 정서적 측면이 완전히 일치하다. 노래에서는 이러한 정서를 시에서보다 직설적으로 표현하였기에 시 이해에 도움이 된다.

그 다음, 노래 2절의 ‘내가 떠나 바람 되어 그대를 맴돌아도/그널 사랑하겠지’라는 가사에서처럼 나는 바람이 되어서도(죽어서도) 사랑하는 임의 곁을 떠나지 못하거나 떠날 수 없는 마음이지만 임은 그래도 그녀를 사랑할 것이다. 다른 여자를 사랑하는 임을 잊지 못하는 나는 죽어서 임의 곁을 맴돌지만 해결책은 없는 것이다. 노래에서 서로 모순되는 복잡한 ‘나’의 감정을 아주 직접적으로 표현하였는바 이것은 시에서 나타나는 한의 정서와도 어울린다. 오세영¹³⁾에서는 한이란 풀어야 풀 수 없는 감정, 모순되는 복합적 감정,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저렇게 할 수도 없는 딜레마의 감정이라고 하였다. 절망적 상황에 빠진 사람은 현실적으로 그것이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자신의 소원 성취 욕구를 단념해야 한다. 그러한 한을 가진 자는 그것을 결코 체념하거나 포기할 수 없다. 따라서 자신의 소원 성취욕에 강한 집착과 미련을 버리지 않고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으리라는 착각 혹은 기대에 빠진다. 이렇게 체념해야 될 상황에서도 그에 대한 미련을 포기하지 못하는 감정, 따라서 실마리가 풀리지 않고 맷혀 있는 감정이 한이다.

한편, 이 노래의 곡에 대해서도 살펴보고자 한다. 곡의 일부분을 옮겨 오면 다음과 같다.

The image shows musical notation on a staff. The first line of lyrics, '나 보기 가 악 쳐 영 번 애 악 산', is written above the staff. The second line of lyrics, '아 름 따 다 가 실 길 애 츠 려 밟 고', is written below the staff. The notation consists of vertical stems with small horizontal dashes indicating pitch and rhythm.

13) 오세영(1998), 한국 현대시 분석적 읽기, 고려대학교출판부, 47쪽.

이 악보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노래의 적지 않은 부분에서 매 음절의 길이와 높이가 규칙적이다. 이는 시를 읽을 때의 낭독 소리와 아주 흡사하다. 예를 들면, 이 시를 읽을 때 ‘나 보기가 역겨워’로 씌여진 시구를 읽을 때 학습자들은 ‘나 / 보기가’를 띄어서 읽을 수가 있는데 노래의 리듬에 따르면 정확하게 읽어낼 수 있다. 한편 노래에서 ‘영변에 약산’에서 ‘약산’의 음절의 길이가 앞 세 음절보다 길어, 실제 시 읽기에서의 소리와 아주 비슷하다. 이러한 곡의 특징은 시적 리듬과 상호텍스트성을 이루고 있어 학습자들이 시의 리듬을 이해하고 시를 읽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2. 노래와 시의 상호텍스트성을 활용한 시 교육 목표

중국의 한국어교육에서 문학교육은 교양의 차원에서 한국문학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고 한국의 사회와 문화에 대한 이해를 깊이 하고자 하는 데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학습자들이 문학에서 고급스러운 언어를 배우고, 한국 문학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이해하고, 문학에 나타난 한국인의 사고 방식, 가치관, 세계관을 이해하는 언어·문화·문학을 통합하여 교육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노래는 악보의 아름다운 조화로 의미를 지니는 것이 아니라 음과, 가사의 내용이 함께 어울려 아름다운 노래로 되는 것이다. 또한 시에서 음악성을 획득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운율과 리듬이다. 피셔(Vischer)는 진정한 서정성의 중심은 가요적인 것이라고 하면서 직접성, 소박성, 단순성, 가창성이 서정적인 것의 근본적 특성이라고 하였다.¹⁴⁾ 한국어교육에서 노래와 시의 상호텍스트성을 활용하여 한국 현대시를 교육하고자 하는 것은 노래 속에서 시의 의미를 이해하고, 노래의 음악성을 활용하여 시의 운율과 리듬을 이해하고자 하는데 그 주요목적이 있다. 그 본다. 왜냐하면 시에 대한 이해는 의미의 이해뿐만 아니라 형식에 대한

14) 정경량(2002), 시와 노래를 이용한 외국 어문학 수업, 인문과학 11집, 164쪽 제인용.

이해까지 이루어져야만 비로소 완전한 이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마야의 노래에서는 시구가 반복되는 형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언어의 내용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그린버그(Greenberg, 1984)는 언어 학습에 학습 자료로 노래를 선곡할 때는 곡 자체에 담겨있는 분위기와 선율이 아름다워야 하고, 노래 멜로디나 단어, 리듬패턴이 자주 반복이 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이 노래에서 시 1, 4연이 반복의 형식으로, 시 전체가 노래 1, 2절에 반복되고 있다. 시구의 반복은 새로운 언어를 계속적으로 강화시키고 복습시켜 기억을 돋게 한다.

시 『진달래꽃』은 자유시 구성이나 정형시의 습성을 완전히 벗어나지 않아 시의 음악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각 연이 1행 2음보, 2행 1음보, 3행 3음보로 행에 따른 호흡의 속도를 다르게 함으로써 리듬의 변화를 주고 있고 토속적 언어와 시의 음악성이 친근감을 주고 있다.

이 시는 형식적인 측면에서 한국 민요에 나타나는 aaba형식¹⁵⁾과 일치하다. aaba형식은 작품이 4행이나 4연으로 구성되었을 때, 첫째 · 둘째 · 넷째의 구조는 동일하고, 셋째 구조만 다른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 민요의 ‘형님(a) 형님(a) 사춘(b) 형님(a)’, ‘노세(a) 노세(a) 젊어(b) 노세(a)’ 또는 소월 시에서 ‘접동(a) 접동(a) 아우래비(b) 접동(a)’(『접동새』) 같은 데서 이 유형을 찾아 볼 수 있다. 이 시의 제1·2·4연의 마지막 행은 각각 ‘드리우리다, 뿌리우리다, 흘리우리다’로 되었고 3연의 마지막 행은 ‘가시옵소서’로 되어 aaba형식의 구조로 되었다. 또한 1·2·4연의 행위의 주체는 시적 자아인 ‘나’로 되었으나 3연은 행위의 주체가 ‘님’으로 나타나 임에 대한 시적 자아의 간절한 소망을 담고 있다. 이런 예들로 미루어보면 이 시의 각운 형태는 세심한 배려로 조직된 것이다. 이 구조는 동형 반복의 지속과 파격을 통한 변화를 구현함으로써 단조로움에서 벗어나는 효과를 내는 동시에 의미와의 관계에서 반전을 형식화한 것으로 보인다.¹⁶⁾

15) 김대행(1980), 한국시의 전통연구, 개문사, 43쪽.

16) 이상호(2008), 김소월의 『진달래꽃』에 대한 재인식, 한국시학연구 23, 한국시학회, 264쪽.

3. 노래와 시를 활용한 교수-학습 방안

Collie & Slater(1987)는 문학 교육에서 작품 세계로 진입하는 과정에 따라 수업활동을 1) 첫 대면(First encounters), 2) 학습동력의 유지(Maintaining), 3) 주요 부분의 부각(Exploiting highlights), 4) 마무리(Endings) 부분으로 나누었다. 작품을 대면할 때의 구체적인 교육목적은 낯선 작품에 대한 호기심을 유발시키자는 것이다. 학생들이 호기심을 갖게 된 다음에는 그 호기심을 유지시키면서 학습 동력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상호반응식의 수업활동과 과제물 등을 통한 계속적인 흥미유발을 유도해야 한다. 작품의 주요 부분을 부각시키기 위해서는 인물이나 구성 등 주요한 작품요소에 대한 학생들의 토론을 끌어내기 위한 교육방법을 활용하며, 마무리에서는 작품에 대한 평가 작업을 돋기 위해 학생들 스스로 작품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어야 한다. Collie & Slater가 제시한 수업활동에 따라 노래와 시의 상호텍스트성에 의한 시 교수-학습 방안을 도입, 전개, 마무리 단계로 재구성해 본다.

- ◎ 대상작품 : 진달래꽃(김소월의 시와 마야의 노래)
- ◎ 단계 : 고급단계
- ◎ 학습 목표 : 1. 『진달래꽃』의 형식적 측면 이해하기
2. 『진달래꽃』의 정서 이해하기
3. 시어의 의미와 쓰임을 이해하고 이를 사용하기

【도입 단계】

학습자의 동기유발과 시 이해를 위한 선행 학습 단계로서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한다.

- ① 노래 '진달래꽃'을 반복하여 듣는다. 노래를 반복하여 들으면서 가사를 기억하게 한다.
- ② 노래에 대한 학습자들의 느낌을 말해 보게 한다.
- ③ 연인과의 이별 상황을 가정하여 학습자의 생각을 말하게 한다.

【전개 단계】

시의 형식과 표현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한다.

- ① 노래를 배경음악으로 낮게 틀어놓고 시를 읽게 하면서 특정 지명과 특정 방언을 찾아보게 한다. 지명인 ‘영변에 약산’은 시인 김소월의 고향으로 그 곳 약산에는 진달래꽃이 많았다고 하지만, 시인의 고향의 진달래꽃을 시어로 선택한 것은 단순한 대상이 아니라 화자의 사랑의 징표라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또 ‘즈려’는 정주 방언인데 ‘지레’ 또는 ‘지리’에서 온 것으로 볼 수 있다. ‘지레밟다’ 또는 ‘지리밟다’는 발밑에 있는 것을 힘을 주어 밟는 동작을 가리킨다.¹⁷⁾
- ② 각 연의 마지막 행만 읽으면서 시의 형식을 밀해 보게 한다. 중국인 학습자들은 고전시 특허는 당시(唐詩)에 대한 지식이 풍부한바, 학습자들은 한국 현대시를 읽으면서도 정형시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각 연의 마지막 행만 읽으면서 ‘-우리다/우리다/읍소서/우리다’를 찾아 이 시의 각운 형태가 민요구조의 형식을 따르고 있음을 알게 하고 이 표현들을 숙지하도록 한다.
- ③ 1연과 4연의 형태가 수미 상관의 구조의 역할은 무엇인지 토론하게 한다.

시의 내용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한다.

- ① 노래와 시에 담긴 사건과 정서가 같은 부분을 밀해 보게 한다.
- ② 노래와 시에 나타난 갈등은 무엇이며, 어떻게 해결되고 있는지 밀해 보게 한다.
- ③ 자신이 시적 화자와 같은 상황에 처했다면 어떤 말, 어떤 행동들을 했겠는가를 이야기해 보게 한다.

【마무리 단계】

- ① 노래를 다시 들으면서 빙칸 채우기 활동을 한다. 빙칸 채우기는 시를 학습하기 전에 학습자들의 스키마를 활용한 예측 활동으로서 이루어 질 수도 있지만, 시를 학습한 후에 이루어지는 빙칸 채우기 활동은 학습자들에게 시의 구조적, 정서적인 완결성을 획득하는 성취감을 맛보게 할 수 있다. 빙칸 채우기는 노래에 시가 처음 나타나는 부분에서는 ‘보내드리우리다, 뿌리우리다, 가시읍소서, 흘리우리다’를 빙칸에 써넣게 함으로써 민요조의 형식을 정리해보도록 한다. 두 번째 시가 나오

17) 이기문(1983), 소월시의 언어에 대하여, 한국시가문학연구, 신구문화사, 424쪽.

는 부분에서는 ‘말없이, 고이, 아름따다, 죽어도, 아니’란 단어 써넣기 를 하여 학습자들로 하여금 시적 정서를 다시 느껴보게 한다.

- ② 시적 정서를 생각하면서 노래를 감상한다.
- ③ 노래로 된 김소월의 다른 시를 찾아보는 과제를 넘긴다.

IV. 맺음말

문학교육의 본질을 포괄적으로 말하면 학습자로 하여금, ‘형상화된 언어 경험’을 통하여 인간과 세계에 대한 의미를 지속적으로 발견·재해석하게 하고, 그러한 과정을 통해 ‘삶과 문화의 주체적인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¹⁸⁾ 외국어로서 한국어교육에서 한국문학 교육은 문학적 경험과 향유가 항상 언어적 어려움 때문에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자극적이고 감동적인 텍스트란 언어적, 문화적 장벽을 극복하는 것 자체를 가능하게 하는 텍스트라고 볼 때 외국어로서 한국어교육에서 문학교육 자체에 대한 교육은 충분히 그 가능성을 갖고 있다.

문학 텍스트를 이해하고 감상한다는 것은 하나의 텍스트에 대한 내용 파악을 통해 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 경험이나 사회 문화적인 맥락에서 텍스트간의 관련성을 이해하는 것이다. 특히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에서 문학교육이 학습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명시화된 학습 목표를 달성하자면 다른 텍스트의 학습 요소와의 의도적인 연결이 아주 필요하다. 교과서에 나오는 텍스트만 가지고 학습목표를 달성하는 것보다는 상호텍스트성을 활용하는 의도적인 교수-학습 방법을 현실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학습자의 흥미를 유발하고, 자신의 배경지식을 적극적으로 발휘하여 다양한 텍스트와 상호작용을 하면서 문학적 안목을 넓힐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이라 본다.

또한 노래에 잠재되어 있던 문학교육을 위한 학습 요소들을 활용하여

18) 박인기(1996), 문학교육과정의 구조와 의미, 서울대학교출판부, 7쪽.

상상력과 감수성을 길러 수준 높은 문학 소통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또한 학습자의 역동적인 활동을 전제로 토론을 할 때 학습자 간의 상호 협력 태도가 신장될 수 있으며 말하기, 듣기 능력을 향상시켜 통합교육에도 긍정적인 영향력을 주게 된다. 한국 현대시가 유행가, 대중가요로 많이 불리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노래와 시의 상호텍스트성에 의한 현대시 교육은 충분히 가능하며, 교수-학습 방법 또한 효과적이고 의미가 있다 는 데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본다.*

* 본 논문은 2010. 6. 29. 투고되었으며, 2010. 7. 12. 심사가 시작되어 2010. 7. 31. 심사가 종료되었음.

■ 참고문헌

- A. W. Ambros, 국민음악연구회 역(1976), 『音樂과 詩의 限界』, 국민음악연구회.
- 김대행 외(2000), 『문학교육원론』, 서울대출판부.
- 김대행(1980), 『한국시의 전통연구』, 개문사.
- 김옥동(1992), 『포스트 모더니즘 이론』, 민음사.
- 김정우(2001), “시를 통한 한국 문학교육의 가능성과 방법”, 『선청어문』 29, 167~193쪽, 서울대학교 국어교육과.
- 김중섭(2002),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읽기 교육 방법 연구”, 『한국어교육』 제13권 1호, 47~70쪽, 국제한국어교육학회.
- 김희진(2002), “김소월의 시 『진달래꽃』에 의한 한국가곡의 비교연구 : 작곡가별 중심으로”,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나정선(2008), “외국인을 위한 문학 교육 방법 연구”, 단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노태한(2004), 『독일시 운율론과 시사』, 한국문화사.
- 독고현(2000), “고등학교 영어 학습을 위한 팝송의 활용 방안과 효과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박인기(1996), 『문학교육과정의 구조와 의미』, 서울대학교출판부.
- 박 청(2002), “외국인을 위한 한국 소설교육 방안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신정숙(2000), “노래 그림책이 유아의 읽기 흥미 어휘력, 읽기 능력에 미치는 영향”, 성신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신주철(2003), “한국 시 교육의 실제”, 『한국어교육』 제14권 1호, 109~130쪽, 국제한국어교육학회.
- 여홍상 편(1997), 『바흐친과 문학이론』, 문학과지성사.
- 오세영(1998), 『한국 현대시 분석적 읽기』, 고려대학교출판부.
- 윤여탁(1999), “문학을 활용한 한국어교육 방법”, 『국어교육연구』 6, 239~256쪽, 서울대 국어교육연구소.
- 윤여탁(2000), “한국어교육에서 문학의 위상과 역할”, 『국어교육연구』 7, 291~301쪽, 서울대 국어교육연구소.
- 윤여탁(2003), “문학교육과 한국어교육”, 『한국어교육』 제14권 1호, 131~152쪽, 국제한국어교육학회.
- 윤여탁(2003), “한국어교육에서 문학교육 방법—현대시를 중심으로”, 『국어교육』, 511~533, 한국어교육학회.
- 이남호(2001), 『교과서에 실린 문학작품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현대문학.
- 이상호(2008), “김소월의 『진달래꽃』에 대한 재인식”, 『한국시학연구』 23, 243~269쪽,

한국시학회.

- 이선이(2003), “문학을 활용한 한국문화 교육 방법”, 『한국어교육』 제14권 1호, 153~172쪽, 국제한국어교육학회.
- 정경량(2002), “시와 노래를 이용한 외국 어문학 수업”, 『인문과학』 11, 153~172쪽.
- 주옥파(2004), “외국인을 위한 한국문학 교육에 대한 반성－한국학 지향 중국 대학의 경우를 중심으로”, 『국어교육학연구』 제20집, 499~521쪽, 국어교육학회.
- 황인교(2001), “외국어로서의 한국 문학 교육의 가능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25 · 26집, 연세대 언어연구교육원.
- 황인교(2007), “한국어 교육학의 문학 연구 방향”, 『한국어교육』 제18권 3호, 273~299쪽, 국제한국어교육학회.

〈초록〉

노래와 시의 상호텍스트성을 활용한 한국어교육 — 김소월의 시와 마야의 “진달래꽃”을 중심으로 —

노금숙

본고는 문학 텍스트에 대한 학습자의 이해는 주어진 하나의 텍스트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가 읽은 기존의 텍스트와의 상호 연관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상호텍스트적인 관점에서 출발하여, 한국 현대시 교수-학습 방안을 모색하여 보았다. 특히 시와 음악은 텍스트적 측면은 물론, 언어의 운율, 정감적 측면에서 상호텍스트성이 강하다고 본다. 한국 현대시가 대중가요, 가곡으로 많이 불리지고 있다는 점에서 노래와 시를 상호텍스트적으로 제시하는 것은 한국 현대시에 대한 학습자의 흥미를 유발하고 현대시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키는 데 아주 큰 의미가 있다고 본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한국 현대시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김소월의 『진달래꽃』을 실례로, 중국인 학습자들의 이해를 심화시키고자 마야가 부른 『진달래꽃』을 상호텍스트성으로 연관 지어 상응한 교수-학습 방안을 모색해보았다. 한국어교육에서 노래와 시를 상호텍스트적으로 관련 지어 시를 교수-학습함으로써 시에 대한 내용 이해뿐만 아니라 형식에 대한 이해도 심화시킬 수 있다고 본고의 의의가 있다고 본다.

【핵심어】 현대시 교육, 상호텍스트성, 노래, 시, 진달래꽃

<Abstract>

Research on the Korean Language Education Utilizing
the Inter-textuality Between Poetry and Song

—take Kim so weoll's poem “Azalea Flower” and
Maya's song “Azalea Flower” as an example—

Lu, Jin-shu

This paper is based on the position of postmodernism, in which the learner's understanding of a text comes not only from the text itself, but also from the various relationships with the other texts that the learner has read before. The paper also explores teaching and learning methods for modern Korean poetry. Especially, poems, songs, and ballads have strong inter-textuality in their text and rhythm and sentiment. Many modern Korean poems are transformed into songs and ballads, so the expression of songs and poems in inter-textual ways in poetry instruction is an effective way to stimulate the learner's interest and deepen the learner's understanding of a modern poem. Hence, this paper examines Kim so weoll's poem “Azalea Flower” as a example, related to Maya's song “Azalea Flower”, seeking their inter-textual links and exploring an appropriate method instruction of the poem.

【Key words】 modern poetry education, Inter-textuality, song, poetry,
“Azalea Flower”